

'95 한국건축문화大賞 수상작 발표

Korea Architecture Awards '95

본 협회와 건설부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21세기 신건축문화창달을 위한 국내최대 규모의 건축문화행사인 「'95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심사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우리 협회가 개최해온 「한국 건축전」과 지난 92년부터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설부가 공동개최해 온 「한국건축문화 대상」을 통합, 개최하게 된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환경과 조화, 인간중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국내건축계에서 활동중인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는 물론 우리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인과 학생이 참가하였다. 총76개 작품이 출품된 준공건축물 부문에서는 대상 1점과 본상 4점 등 23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계획 건축물부문에서는 신인부분 16점과 학생부분 179점이 출품되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및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정하였다.

준공건축물 부문

1. 작품접수 현황(76점)

- 비주거 / 63점
- 주 거 / 13점

2. 심사일시

- 1차심사(사진첨심사) / '95. 9. 12
- 2차심사(현장심사) / '95. 9. 19~9. 27

3. 심사위원 명단

- 위원장 / 이해성 (전, 한양대학교 총장)
- 위 원 / 송기덕 (주)정일엔지니어링 대표
- 신달자 (시인, 피어선대학 교수)
- 이동배 (인하대 교수)
- 이병담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 이호진 (건국대학교 교수)
- 정 훈 (서울경제신문 편집부국장)
- (가나다순)

4.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 / 10. 16(월)~10. 23(월)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5. 수상작 현황

수상구분	작 품 명	건 축 사	시 공 자	건 축 주
대상	포스코 센터	(주)간·삼 종합건축사(사) 지순+ (주)POS-A.C.종합건설/종합건축사(사) 심인보	(주)동아건설산업 유성용	포항종합제철(주) 김만재
본상	쌍용투자증권 사옥	(주)원도시건축 윤승중, 변 용, 장응재	쌍용건설(주)	쌍용투자증권(주)
	경희분당 차병원	(주)공간 종합건축사(사) 장세양	쌍용건설(주)	성광의료재단 차경섭
	홍천휴게소 팜파스	(주)에스티메타 종합건축사(사) 이종호, 양남철	허 정	이진혜

수상구분	작 품 명	건 축 사	시 공 자	건 축 주
본 상	삼성국제 경영연구소	(주)삼우 종합건축사(사) 김창수, 박 승, 한상목	삼성건설(주)	삼성물산(주)
우수상 (시공)	수원선경 도서관	종합건축사(사) 하나그룹 오성근, 홍기택	선경건설(주)	(주)선경인더스트리 선경건설(주), (주)선경 (주)유공, (주)SKC
	도원대동 한마을터운	종합건축사(사) (주)그룹원 박찬정	(주)대동주택	(주)대동주택
입 선	삼성동 현대빌라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다산 지영근, 이태훈+(주)현대 건설 주택사업본부 설계실	현대건설(주)	현대건설(주)
	이주대 에너지 시스템연구소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	(주)대우	학교법인 대우학원
	청주 예술의 전당	(주)대건건축사(사) 곽은영	현대건설(주)	청주시청
	서귀포 푸른 학생의 집	반 종합건축사(사) 김용철	(주)성환종합건설 (주)영진종합건설	제주도교육청
	(주)퍼어리스 레이디스파크	(주)아도무 종합건축사(사) 장석용	(주)주립건설	(주)퍼어리스
	한국산업은행 전자계산소	(주)희림 종합건축사(사) 이영희, 민병훈, 이석문	(주)대우건설	한국산업은행 전자계산소
	(주)동양투자 신탁사옥	(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 윤석우	(주)우방	(주)동양투자신탁
	지역사회 교육관	건축사사무소 전이 전은배	현대산업개발(주)	재단법인 한국지역 사회 교육연구원
	리츠칼튼 서울	(주)종합건축사(사) 이 공 류춘수	두산건설(주)	전원산업(주)
	상주중앙 국민학교	건축사사무소 옥저건축 이근곤	(주)주일건설	경북교육청
	남양주 시청사 및 의회동	(주)성림 종합건축사(사) 임정렬	(주)대영	남양주시
	하남시 청사		(주)동부건설	하남시
	올림픽 기든타워	(주)종합건축사(사) 아키반 김석철	삼성중공업(주) 건설사업본부	김정남 외 3인
	문학계	예공건축 정운영, 우경국	(직영)마효열	차무기
	성동구민 체육센터	(주)삼정디자인그룹 김기용	(주)풍한기업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화그룹 종합연구소	(주)아키텐 종합건축사(사) 김우성	덕산토건(주)	한화그룹 종합연구소
차명당	종합건축사(사) 단우·모람 김홍수	(주)모람 허준규	이동민	
공로상	대한건축학회			

계획건축물 부문(신인·학생)

1. 작품접수 현황(195점)

- 신인 / 16점
- 학생 / 179점

2. 심사일시

- '95. 8. 30

3. 심사위원명단

- 위원장 / 이종관 (본 협회 이사)
- 위 원 / 강철구 (동우건축대표)
- 김광현 (서울대 교수)
- 김성우 (연세대 교수)
- 김인철 (인제건축 대표)
- 박길룡 (국민대 교수)
- 이성관 (한울건축 대표)
- (가나다순)

4. 전시기간 및 장소

- 기간 / 10. 16(월)~10. 23(월)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5. 수상작 현황

—신인부문

수상구분	작 품 명	수상자	소 속
최우수상	LIVE SHOWWINDOW	류상보, 한상범	ELTO종합건축사사무소
우수상	열린병원	박남규	한양대 대학원 건축학과
장려상	공존을 위한 벽	박상현, 박병택	정림건축
	노인주거계획안	서춘수, 김인순	(주)에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학가	곽희수, 박경훈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그룹 건축도시연구소
입 선	인쇄문화센터	정병균	효원건축사사무소
	에·촌(藝·村)	성산준, 최현목	한양대 대학원 건축학과
	구민회관 활성화 계획안	이순석, 이상현	한양대 대학원 건축학과
	중·소도시의 가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명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산

심 사 평

- 준공건축물부문

이해성 / 전 한양대학교 총장

부실이라는 말이 건축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려 새 건물이 생길 때마다 우선 안전하느냐 소리가 먼저 들린다. 인간과 생활의 보호막이라는 건물의 기본적인 본질까지 신뢰를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건축의 참 모습을 보려고 애썼던 그 많은 작품들 속에서 상을 안겨줄 대상을 고르는 데는 다소의 심리적 부담을 안아야 했다. 또 산업구조사회의 실용성과 효율지향의 동향에 따른 보통성과 획일성에 길들여진 건축의도와 탈산업이라는 또 다른 삶의 가닥을 찾으려는 동향에서 생긴 다양화와

—학생부문

수상구분	작 품 명	수상자	소 속
최우수상	동사무소	한신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우수상	家 - 농촌주거계획안	김지혁, 박준구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서울학 연구소	홍만식, 김지원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장려상	양의신공	서동수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문화공간 되찾기	정진기	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예술의 거리 - 공간의 발생·잉태·체험	송희열, 최현연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도심지의 초등학교 계획안	김주원, 방기아	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Yang Chon Community Center	김기범, 유창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URBAN VELOCITY	조영수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URBAN STREAM	심우재, 박홍근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최고의 기준	김희철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PROTOTYPE-A	백중태	승실대학교 건축공학과
	부산 20C 역사박물관	여경서, 최성일	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시도건 축사회 회장상	서울 불휘 기쁜 날 2	권태훈, 서재훈
Another Court in the Court		김해륜, 손정환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부산 RECOVERY		손한계, 이희종	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대구 건축인의 꿈(학술교류의 장)		여중수	경북산업대 건축공학과
인천 ENTRANCE		김진철, 심은보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전 마을만들기		최강환, 박정옥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경기 유기적 번이(번천)		박재경, 서진석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경남 치용얼굴 찾기		친병권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전남 문화시설계획안		김승일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입 선		남·림	이기훈, 김은희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남건수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사태연구100 - 수상비행기 격납고 - 전시관	김덕원, 스티브 조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도시의 마지막 비상구	박정배	경북산업대 건축공학과
	블로그박물관	정원광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즐거운 기억 - 종로구청 재계획	노명철, 전호성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공존	윤창민, 윤 선	동신대학교 건축학과
	도심공원 활성화 방안	백용태, 김현미	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공존(동래 간이역 재개발)	안형주, 변지상	부산공업대 건축공학과
	청소년 문화공간	이충호, 홍경표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마로니에 미술관	김부성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환경연구교육센터 계획안	김덕현, 허성삼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도시의 중심	임재상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인파 밖 그리고 문	정병호, 김용영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일시적 전시관	박병걸, 박상현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되돌려진 자리 - 옛 가마터	김학균, 오영석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다원화 의식에 맞추어진 개성을 돋보이게 하려는 건축의도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은 심사의 주안을 외곡으로 맞출 수가 없었다.

이번 대상작품들을 보면 건축가들이 구사하고 있는 조형언어나 공간적의도 속에 이런 고난이 내재되어 있음이 역역하다.

이런 작품들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간추려 보면 한국의 것이든 서구의 것이든 고학적 기풍을 찾아서 20세기적 생산수법에서 벗어나 보려는 의도의 건축과 오히려 20세기적 생산기대원리에 입각하고 그 Mechanism을 동원하여 합리적 결정체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의 건축, 또 다양성을 알데코풍의 장식성에서 찾아 다분히 상업주의화한 의도의 건축, 그리고 끝으로 소박한 실험적 시도로 새로운 것을 모색해 보려는 건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심사는 그 어떤 것이든 분명한 의도가 보이고 그 의도가 조형이나 기능, 그리고 공간에 정확히 펼쳐지고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기능수단의 동원과정에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소화시킨 흔적이 보이는 그런 건축이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예년 같은 현상이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아쉬웠던 것은 시상의 원 뜻 속에 있는 주거부문의 작품이 평년작에도 못 미치는 흥작이었다는 것이다.

질적측면은 물론 양적으로도 비거주부문과 비교가 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놓고 심사의 첫 단계부터 고심해야 했다. 이 문제는 전작품을 일괄평가해 본 연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사는 어느 때나 신중을 기해야 하나 70여점에 달하는 나름대로의 역작들을 제한된 시간으로 우열을 가려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까닭에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공동토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심사에 의해서 현물을 답사할 만한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결과 그 대상이 되는 작품 21점이 골라졌다.

분명하게 선을 긋기가 애매한 것도 있으나 문화시설이 다섯 작품, 업무시설이 다섯 작품, 상업용시설이 네 작품, 연구시설이 두 작품, 청사가 한 작품, 의료시설이 한 작품, 개인주택이 두 작품, 공동주택이 한 작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현 우리 사회의 건축적 과제나 투자의욕 등의 향방을 엿 볼 수 있었다.

건축이 문화적 소산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또 그것이 하나 탄생하려면 포임기간이 길고 사회적인 존속가치는 쉽게 단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런 인식은 상식화된 것 같으나 의외로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나 건설을 맡은 시공자가 거래상에서 불공정을 느끼고 애로를 당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불충분한 여유와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작품을 볼 때 나름대로의 노고와 재능을 바쳐서 건축문화와 도시문화 창달에 애쓰고 있는 흔적을 보고 밝은 장래를 느꼈다.

80시간여의 답사강행군은 설계와 건설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에 비한다면 짧고 불충분한 것이었으나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귀중한 확인과정이었다.

건축의 본질인 기능이나 조형 그리고 공간성 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정밀성과 좀 더 나아가 건축주와의 호흡의 조율관계까지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초심에서 예측했던 작품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타 몇 개는 기대에 어긋나서 낙담을 안겨준 것도 있었다.

27개 작품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21개의 작품을 현장 심사의 판단을 토대로 결정하고 이 13개 작품에 대한 각 심사위원의 소견과 토의를 거쳐서 입상작품 8개를 표결하였다.

대상과 본상은 위원간의 진지하고 열띤 토의에 의해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전원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심사초에 과제로 남겨두었던 주거부문의 문제는 운영 규칙의 뜻을 존중하여 우수작품으로 한 점을 정했다.

끝으로 소감을 말한다면 심사의 결과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제시하고 있는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생활공간의 구현, 그리고 우리 건축의 장래를 이끌어 갈 후진의 발굴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결과로 매듭지어졌음을 밝힌다.

또 하나는 건축이 환경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게 마련이지만 도시와 건축 또 건축과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건물의 공용면적을 이들과 맺고 융화시키려는 적극적 기도와 작가의 의식 속에 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민주적이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볼 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다운 도시, 인간다운 건축이라는 장래의 모습을 위해 미래가 밝은 동향이다.

금년도 공모부문은 주어진 대상중에서 대한건축학회의 반세기의 업적과 건설의 선두적 역할을 필생의 일로 이룩해 온 현대건설의 정주영 명예회장을 추대하기로 이의없이 결정했다.

이동배 /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일차심사를 통과하여 본심사의 대상으로 오른 작품들을 만나보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녀온 닷새간은 바쁜 일정에 쫓기는 힘든 나날이었지만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하나의 건축물을 자랑스럽게 탄생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은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만나 그들이 그 속에 불어넣은 입김을 통해 살아 숨쉬는 작품의 진가를 음미하면서 한국 건축문화의 오늘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나는 그 사이 착실하게 연륜을 쌓으며 무게를 더해가고 있는 이상 그 이름에서부터 이 시대의 '문화'로서의 건축을 자리매김하려 함에 있어 건축을 빚어내는 세 주제 모두를 심사와 시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엇보다 공감되는 일이어서 감히 심사위원 위촉을 수락하였다. 그래서 작품마다를 안밖으로 읽어내는 데에 멀리서 조망하고 그들이 우리땅 우리마음 속에 어떻게 놓여지고 어우러져 함께 삶을 누릴 것인가를 먼저 짚어보려 하였다. 따라서 예술작품으로서의 평가에 전제가 되는 조형적 독창성이나, 살기 위한 기계로서의 기능 못지않게 도시적 맥락 속에서 공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값어치를 더욱 소중히 가늠해 보아야 했으며, 이 점에 대해서 심사의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모두가 무언의 합의를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출품자 전반에 대한 느낌은 솔직히 복잡한 희비의 감정의 교차였다고 말하고 싶다. 낙후와 혼미의 구태의연함이 참신하고 과감한 도전과 열의에 아직도 뒤범벅된 한국적 현실의 단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앞서고 뒤진 작품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주거부문은 출품자체가 부진하였던 것이 이유야 무엇이던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건축문화창달의 뿌리가 되어야 할 이 분야의 관심이 더욱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권위를 더해갈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우리 건축가들의

꿈이 찬란히 꽃피는 자리를 마련함과 아울러 이러한 격차를 줄여 우리가 사는 건축환경이 바람직한 수준에 한시 바빠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도 아울러 함께 해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싶다.

신달자 / 시인, 피어선대 국문과 교수

핸들을 잡고 길을 달리다 보면 순전히 호기심으로 낯선 길을 들어 설 때가 있다.

물론 실수가 따를 때도 있지만 호기심의 결과가 뜻밖에 큰 보람과 만족을 얻을 때가 있다.

이 결과를 두고 나는 그런 경험과 비교를 하고 싶었다. 처음엔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 수줍기도하고 사실 당당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건축이란 어느 분야의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과 관심이 없지 않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매력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나로서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하나의 새로운 눈을 뜨는 개인의 빛을 안은 셈이었다.

사실 나는 건축에 관해 별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사회 전반의 인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뢰성에서 회복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앓고 있었다해도 틀리지 않는다.

국가의 자존심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짊어진 건축에서 시공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막힌 슬픔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를 통해 그 절망과 불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을 나는 보았다.

물론 모든 건축문화에 적용되고 희망은 아닐지 모른다고 해도 분명 그 짝은 자라고 있었다.

그 짝이 대중성의 다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한 시선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건축계의 모범이 되는 건물들은 바라보았던 것이다.

기우가 있다면 질적으로 너무 폭이 크다는 것을 생각했다. 몇 개의 건물은 최첨단의 기능과 독창성으로 세계를 앞서가는 자부심을 건축 곳곳에 심어 놓는가 하면 또 몇 개의 건물은 기업목적만을 추구한 나머지 대중과의 친화력조차 무시한 저질스러움도 없지 않았다.

앞으로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가 다 함께 개인을 떠난 보다 큰 세계성을 확보하는 야망을 가져 성실한 「짓기 문화」를 이 시대의 작품문화로 세워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뿐이었다.

발로 뛰고 머리로도 뛰는 좋은 공부였음을 밝히고 싶다.

- 계획건축물부문(신인 · 학생)

김성우 /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설계경기의 심사에 참여하고 나면 두가지의 상반된 느낌이 남는다. 한가지는 많은 사람이 많은 수고를 한 설계를 대함으로써 마치 작품의 잔치에서 작품을 통해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은 반가움과 뿌듯함이 그

한가지이다.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이 건축설계라는 것을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무엇을 추구하였는가 하는데 대한 불확실함이다. 이러한 느낌은 학생과 신인들이 출품하는 건축문화대상같은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하면 출품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축설계란 조형적, 공간적인 심미성의 추구로 인식된 듯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의 성격이나 건물의 기능과 무관하더라도 조형적인 성취가 우수하지만 하다면 된다고 믿는 듯한 작품도 많았고, 학생부분 우수상을 받은 작품중의 하나도 내눈으로는 그렇게 밖에 안보인다. 건축가는 그러한 심미성을 잘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전문인으로 인식된 듯하다.

조형적·공간적 심미성이 나쁜것도 틀린것도 아니다. 단지 건축이란 것이 그러한 심미성을 한 부분적 충족조건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좋은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또다른 측면이 너무 도외시되고 있다. 건축이 조형의 문제이기 이전에 삶의 문제이고 공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문화적으로 규정되며, 심미적인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건축현실에 대한 제안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유독 심미적 성취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남는다. 그리고 그러한 심미성의 경향이란 것은 거의 어김없이 기존의 서양건축의 성취에서 이미 낮익은 방식이 차용된 성격이 주류를 이룬다. 학생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도 그러한 성격에서는 예외가 아닐 것이다. 신인부문의 최우수작과 우수작의 경우에서도 디자인의 수준은 인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 솜씨를 넘어서 확인되는 주장이나 메시지, 또는 제안과 같은 것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 심사위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우리의 건축현실은 도시, 역사, 환경, 기술 등의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참신한 제안과 오리지널한 발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출품하는 사람들은 머뭇거리기에만 신경쓰고 있을뿐 그 이외의 문제 인식이 없지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 의식적인 책임을 설계경기에 출품하는 학생과 신인에게만 돌리자는 것도 아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의 건축계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며, 또 지금 시대의 한국 문화계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작품을 대하는 선배의 입장에서는 건축을 생각하는 사고의 편향성을 야단이라도 치는 심정으로 토로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심미성을 추구하는 재주가 아니다. 심미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왜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포함하여 건축행위에 대한 이유, 문제의식, 그리고 그러한 사고의 오리 지널리티이다.

박길룡 / 국민대 건축공학과 교수

모든 수상 제도가 그러하듯 건축상에게도 회수를 거듭하면서 어떤 누적된 가치를 기대하게 마련이다. 이제는 「한국건축문화대상」도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하는가 아

니면 고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행시는 아닌가를 선착해 볼 필요가 있다.

당초 이 상의 목적인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 의욕 고취'란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향적 가치라고 하기는 썩스럽다. 무엇을 궁극적 성과로 거두고자 하는가가 모호하면 출품작의 태도도 애매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상의 사회적 자극과 신진 건축가들의 제작 욕구를 부추기는 효과를 기대하며 출품작과 만난다.

신인상의 경우 이전의 어느 해 보다도 현저히 높아진 작품의 완성도가 인상적이다. 조형의 성숙성도 크게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출품 수에서 열세를 보였으나 대체로 질적 수준의 진보는 수적 아쉬움을 극복하고도 남는다.

대상 작품에서 발견되는 공간과 형태의 수월성은 충분히 익은 것이었고, 제작의 완성도가 높다.

우수상의 선정은 나머지 장려상 후보들과 변별될 만한 점이 없어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바꾸어 말해 장려상에 오른 세 작품의 수준은 우수상에 버금가는 것이라 하여도 무리가 없다. 형태보다는 공간에 대해 우선 주목하는 인식이 도시 건축에서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외적 형태를 이루는 레이어의 풍부한 구사는 건축적인 스케일을 순화시키는데 유효하며 가로를 즐겁게 한다. 내부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순간에서 거주인의 감성을 풍부히 할 것이다. 우수상이 수직적 공간 체계에서 이를 이루는데 비해 장려상 작품들은 수평적 구도에서 이를 얻고 있다.

이러한 '다듬는 솜씨'에 비해 신인상의 출품작들에서 일별 되는 문제는 그것이 사회적이던, 도시적이던 어떤 상위의 메시지가 열린다는 점이다.

신인상 부문에 비해 학생상에서는 대상작을 분명히 주목하기가 어려웠다. 수상 후보들이 압축되어 가는 과정까지 상대적인 장·단점이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높은 건축적 완성도에 상대는 개념의 빈약, 주제의 설정 가치에 비한 공간적 미숙, 조형의 솜씨에 반하여 작가의 아이덴티티 부족과 같은 엇갈린 가치들이다. 결국 오브제의 매력에 지배하여 「동사무소 계획」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최고상에서 기대되는 독창의 향기는 접어 두어야 하였다.

올해의 출품 규정은 도판의 크기가 축소되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깊은 내용의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는 상식 때문에 작품의 스케일을 가능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대는 이전의 출품 경향에 비해 상당히 설득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슈퍼 스케일의 소재를 한정된 지면과 부족한 전개력으로 시도하는 무모함이 안타깝다.

강철구 / (주)동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학생들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명확히 나타내면서도 성실한 내용을 갖고 학생대움의 창의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모방도 있을 수 있으며 치기 어렵과 거친 표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출발은 충실한 기초 다지기부터 시작하

여야 할 것이다. 응모 작품 전체의 흐름은 예전보다 훨씬 내실화된 작품이 많았으나 아직도 주제 선정에 있어서 특수성을 표현하여 쉽게 풀려나 면이 보였다.

마지막까지 남겨진 세 작품을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서울학 연구소」는 치밀한 작품 구성과 완성도가 아주 돋보였으나 오히려 신선감이 떨어진 듯하여 감점이 되었고 「家-농촌 주거 계획안」은 한국형 농촌 주택 형식을 구성하려는 노력과 간결하고 깨끗한 표현으로 눈길을 끌었으나 공간 구성에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 최우수상의 「동사무소」는 3개층에 걸쳐 반복되어만 들어지는 예각 공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잘짜여진 평면과 현실성에 민감한 모퉁이 대지 이용을 훌륭히 처리한 것이 좋았다.

신인 부문에 있어서는 16개 작품 모두가 하나하나 훌륭한 것이었다. 대다수의 작품에서 넘쳐나는 힘과 패기를 쉽게 느낄 수 있었고, 현실 적응도가 높은 것도 이번 응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최우수작 「Live Showwindow」는 처음부터 빼어났다는 느낌이 있도록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은 것이었다. 두개의 건축물이 크기가 비슷하고 병렬로 맞닿아 있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결국 대지의 선정 때문이라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찰이 없는 두 건물의 조형성은 높이 살만하다. 부분적인 디테일의 감각도 훌륭하며 상업건축물의 본래 취지를 아주 잘 설명한 나무랄데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열린 병원」은 작은 병원 건축물로의 일찬 내용과 너무 요란하지 않은 외부 처리가 좋았다는 느낌이다.

두개 부문의 응모작들을 보면서 좀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응모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패널 및 모형에 국한하고 그것도 꼭 규격을 정하는 것은 화가에게 캔버스의 크기를 정하고 그리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주최자의 진행만을 위하여 형태와 크기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건축 문화 대상」의 특징을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면서 기준을 정할 일이다.

이성관 / (주)한울종합건축사사무소

올 해 학생부분 공모전은 집합이나 개체의 관점을 논하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그 규모를 보다 크게 설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큰 제스처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일관된 메시지가든가 전략이 부재하고, 논리 전개에서 설득력이 부족하여 알맹이가 빈약하거나 혹은 그 주제가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자기능력에 부치는 목표를 설정하므로써 그 줄거리가 산만해져, 스스로 주제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프로그램의 이해부족, 작품의 주제 설정 미숙, 특히 입지선정이라는 중요한 기본전략에서 실패하였다고 지적하고 싶다.

일례로, 장려상에 머문 「최고의 기준」의 경우, 건물만으로는 그 절제된 간결한 표현과 섬세한 디자인으로 완성도 높은 인상깊은 작품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보석』을 빌딩 옥상 위에 스스로 『뚝』으로서 보석을 돌로 보이게 하는 난센스를 저질러버렸다고 생각한다. 차라

리 이 내향 밀폐형의 은밀한 연출을 지상의 밀집 주거군에 놓았을 때, 훨씬 더 그 보석이 가치있게 되며, 그것이 더 문맥적일 수 있다고 본다. 아니면 고층건물 옥상 위에서 취한 이러한 자폐적 제스처가 어떤 의도적인 반어법적 구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그 특수 Program 설정은 일반해로써 제시 되지는 말아야 했었다고 생각된다.

우수상의 『서울학연구소』는 구성적 완성도를 갖는 몇 안되는 작품 중 하나였다. 넓은 전체를 『하나』로 결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고 디자인 스킬도 학생 수준으로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이 왜 그 장소와 연관을 맺어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고, 주제의식의 미약함, 진입과 접근방식의 문제점, 입지 선정의 애매함 등으로 아쉬움을 주는 작품이었다.

우수상인 『家』는 전통주거와 현대 농가주택을 연결지어 해석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으로 보인다. Program 설정상 이러한 현실적인 유리함을 갖고 좋은 전략에서 출발하였으나, 작품의 완성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부분적인 건축요소들간의 해결이 미숙한 점이 아쉬웠다. 그러나, 학생 작품으로서의 힘과 의지가 보이는 주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최우수작으로 뽑인 「동사무소」는, 그대로 그 동네 코너에 지금 놓이더라도 무리가 없을 「편한」 건물로 받아들여졌다. 적어도 이 학생은 이 작품을 하는 동안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역량한도 내에서 잘 이해하며 작업을 하였다고 느끼며, 소박한 일상 주제를 전체적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잘 해결했다고 본다. 작품의 최종적 성취에서 라기보다는 작품에서 읽어 볼 수 있는 작가의 접근과정이나 작가적 자세가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수상 이유 중 하나였다.

신인 부분에서는 실무에 있는 입장이란 점에서 출품된 내용의 리얼리티와 완성도에도 비중을 두었다. 우수작인 「열린 병원」은 전체적으로 무뎠하였으나, 독립문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자체의 「열림」이 좀 미흡하였다고 보았다. 최우수작인 Live Showwindow 는 인접한 근생 두 건물 각각의 개성과, 조화, 그리고 입지를 잘 살렸다고 보았다. 자칫 무리하게 흐를 수 있는 상충되는 요소간의 만남을 작가의 유연한 구성 능력으로 잘 해결하였다.

수상에 들지 못했던 몇몇 가까운 「노력」들에도 아쉬움과 찬사를 보내고 싶다. 특히 이럴 경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Frank Gehry의 말이 문득 생각한다. "Being accepted isn't everything."

김인철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얼마전 서울건축학교에 초대되어온 외국 건축가는 우리나라의 건축상황을 매우 놀라워하였다. 건축의 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안쓰럽게도 엄청난 물량을 경이롭게 보았다. 지난 통계에 의하면 한해동안 전국에서 20만건의 건축이 일어난다고 한다. 평생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기회만 있다는 유럽의 건축가들에게 몇백 단위의 작업량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우 행복한 편이다. 실제 상황에 어

울릴 만큼 수없는 계획 작품이 크고 작은 공모전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사협회, 기협회, 학회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행사 외에도 잡지사, 문화단체, 각 지방단체 등에서 행하여지는 것까지 합치면 그 또한 천단위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옛날 현대건축 초기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어른들은 지금의 열기를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척박한 문화 환경과 열세의 인적자원으로 국전에서의 건축부가 존폐위기에 까지 몰렸던 것을 돌이켜보면 금석지감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열병치루기로 우리건축의 수준이 얼마만큼이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화려하게 등장하였던 역대의 수상자들 중에서 지금 제몫을 하고 있는 건축가는 드물다. 그 만큼의 작업량과 연륜이 축적되었음에도 우리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낱 소모전일 뿐인가 하는 회의가 뒤따른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알가알부하고 싶지는 않다. 심사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혹시나 하는 기대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충실하고 제목소리를 갖는 것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이백여 점에 가까운 작업들 사이를 아픈 허리를 추스리며 한바퀴 돌아 보았을 때의 느낌은 답답함이었다. 공들인 내용을 한눈에 읽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아둔함이 그 첫째 원인이겠지만 태반이 넘는 외국어 제목과 수사적이거나 현학적인 단어의 나열, 목청껏 소리치고 있는 듯한 표현들, 제각각인 도면과 모형들로 인한 소란스러움이 그 둘째 이유인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먹기를 소화 불량과 거창한 테마, 규모만 크고 내용은 없는 껍질, 낮은 모습의 흉내 등은 속아내고 완성도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귀기울이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찾기로 하였다. 혼자만의 심사가 아니므로 합의과정이 뒤따라야 하였지만 나의 선택기준은 학생다움이었다.

신인부에 등장한 작품들은 우선 그 수에 있어서 초라함을 면치 못하였다. 학부의 열기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건축의 장래는 비관적이다. 세련된 테크닉의 구상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아쉬움 때문에 괴롭게 되었다. 신인부의 입상자에게 건축사 시험의 설계과목을 면제하는 과감한 처방이라도 있어야 잠자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밤을 지새우는 작업과 토론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들이 한때의 낭만이나 과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왜 건축을 하여야 하는가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지기를 바란다.